

광주시교육청 '역할극 활용 성인권 교육'

초등학교 24교 대상 7월18일까지 학급별 교육

성교육 존중·배려 성평등한 학교문화 조성

광주시교육청이 7월18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역할극을 활용한 성인권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역할극을 활용한 성인권 교육'은 희망 초등학교 24교를 대상으로 99회로 나눠 학급별 교육으로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학생들이 일상생활에서 성적인 불편이나 비하, 또래들 간 성추행, 디지털 성폭력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을 반영해 마련했다. 또 일방적 강의식 교육이 아닌 참여식 교육을 통해 성인권 교육에 대한 몰입도를 높여 학생들이 더욱 쉽게 이해하고 다가갈 수 있도록 배려했다.

특히 학생들은 이번 교육을 통해 학생들 간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는 성관련 문제 및 2차 피해 사례, 경계존중 교육을 역할극으로 만들어 직접 참여해 본다. 피해자의 마음에 공감하며 성폭력의 위험성에 대해 생각해 보고 문제상황 발생 시 대처능력 및 해결 방안에 대해서도 체험해 보는 유익한 시간이 될 전망이다.

교육에 참여한 광주남초 한 학생은 "이번 교육을 통해 평소에 친구들에게 장난처럼 했던 행동이 성폭력이 될 수 있다는 점과 상대방의 경험을 지켜주는 경계존중 교육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게 됐다"며 "역할극을 통해 피해자의 기분



을 자세히 느낄 수 있었고, 성폭력 가해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정종재 과장은 "성폭력 예방을 위해서는 일상에서 발생하는 성차별적 문화와 왜곡된 성의식이 성폭력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학교 구성원의 성인지감수성을 우선적으로 높여야 한다"며 "앞으로도 성평등한 학교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꾸준히 지원하는 한편 체험·참여 중심의 성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성인권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덕성 기자



광주송정도서관, 고려인마을 어린이 전통놀이 체험행사

광주송정도서관은 최근 월곡동 바람개비꿈터공립지역아동센터에서 고려인마을 어린이들이 우리 문화에 친숙해질 수 있도록 전통놀이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고려인마을 어린이들에게 전통놀이 체험을 통해 우리 문화를 더욱 쉽고 즐겁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아이들이 직접 협동제기, 딱지놀이, 버나돌리기 등 다양한 전통 놀이를 체험해 보는 시간으로 운영됐다. 또 가정의 달을 맞아 어린이들에게 과자 꾸러미를 전달했다.

/이만석 기자



HOME > 뉴스 > 교육

광주송정도서관, '광주고려인마을 어린이 대상 세계인의 날 행사' 운영

유새봄 기자 | 승인 2022.05.26 19:49

| 우리 문화이해 위한 전통놀이 체험, 과자꾸러미 전달



세계인의 날을 기념해 월곡동 바람개비꿈터공립지역아동센터에서 고려인마을 어린이들이 우리 문화에 친숙해질 수 있도록 전통놀이 행사 및 과자꾸러미를 전달했다.

광주송정도서관이 지난 20일 세계인의 날을 기념해 월곡동 바람개비꿈터공립지역아동센터에서 고려인마을 어린이들이 우리 문화에 친숙해질 수 있도록 전통놀이 행사를 진행했다.

26일 광주송정도서관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고려인마을 어린이들에게 전통놀이 체험을 통해 우리 문화를 더욱 쉽고 즐겁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아이들이 직접 협동제기, 딱지놀이, 버나돌리기 등 다양한 전통 놀이를 체험해 보는 시간으로 운영됐다. 또 가정의 달을 맞아 어린이들에게 과자 꾸러미를 전달했다.

광주송정도서관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어린이들이 우리 사회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더불어 살아가는 다문화 공동체 형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매년 5월 20일인 '세계인의 날'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 우리 국민과 재한 외국인이 서로 존중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난 2007년 법정 기념일로 지정된 바 있다.

유새봄 기자 newbom@gjdream.com

유새봄 기자 newbom@gjdream.com

[HOME](#) > [전국](#) > [광주/전남/전북](#)

광주송정도서관, 광주고려인마을 어린이 대상 세계인의 날 행사 운영

□ 이미애 기자 (az66726310@gmail.com) | ◎ 승인 2022.05.26 18:09



©천지일보

광주송정도서관이 지난 20일 세계인의 날을 기념해 월곡동 바람개비꿈터공립지역아동센터에서 고려인마을 어린이들이 우리 문화에 친숙해질 수 있도록 전통놀이 행사를 하고 있다. (제공: 광주시 교육청) ©천지일보 2022.5.26

전통놀이 체험과 과자꾸러미 전달

[천지일보 광주=이미애 기자] 광주송정도서관이 지난 20일 세계인의 날을 기념해 월곡동 바람개비꿈터공립지역아동센터에서 고려인마을 어린이들이 우리 문화에 친숙해질 수 있도록 전통놀이 행사를 진행했다.

26일 광주송정도서관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고려인마을 어린이들에게 전통놀이 체험을 통해 우리 문화를 더욱 쉽고 즐겁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아이들이 직접 협동제기, 딱지놀이, 버나돌리기 등 다양한 전통 놀이를 체험해 보는 시간으로 운영됐다. 또 가정의 달을 맞이해 어린이들에게 과자 꾸러미를 전달했다.

광주송정도서관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어린이들이 우리 사회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더불어 살아가는 다문화 공동체 형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매년 5월 20일인 ‘세계인의 날’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 우리 국민과 재한 외국인이 서로 존중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난 2007년 법정기념일로 지정된 바 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 새 시대 희망언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미애 기자